

재미있는 촉감놀이 _ 씨앗(열매) 짝 찾기

개발자	강경래(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)
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자연놀이 중 하나인 촉감놀이이다. 여러 종류의 씨앗을 이용하여 촉감만을 가지고 자신의 씨앗(열매)과 같은 모양의 씨앗(열매)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으며 서로의 느낌을 교감하게 된다.	
활용대상	유아 ~ 중·고등, 성인
활용시기	사계절
준비물	각종 씨앗 1쌍 이상
소요시간	20분
제작비용	없음





놀이 설명 후 씨앗(열매) 나눠주기



놀이 후 소감 발표

운영방법

1. 동그랗게 모인 후 뒤로 돌아 눈을 감는다.
2. 손만 뒤로 뻗으면 진행자가 각각의 손에 다양한 씨앗(열매)을 놓아준다.
3. 씨앗(열매)을 받은 손을 오므리고 나도 보지 않는다.
4. 서로에게 손에 있는 씨앗(열매)의 느낌을 이야기 하며 씨앗(열매)의 짝을 찾는다.
5. 정해진 시간이 지난 뒤 자신의 짝과 함께 손을 열어 씨앗(열매)을 확인한다.

향후방향

- 씨앗(열매) 짝 찾기 놀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서로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킨다.

참고내용

※ 주머니에 들어가는 씨앗 종류

- 밤 : 밤나무의 열매로, 지름 2.5~4cm의 짙은 갈색으로 익는다. 울자(栗子)라고도 한다.
- 솔방울 : 소나무나 잣나무의 종자가 들어 있는 커다란 원뿔 모양의 구조물뿐만 아니라 밑씨가 들어 있어 장차 종자가 만들어질 자성 구조물과 꽃가루가 만들어지는 작은 원뿔 모양의 웅성 구조물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이다.
- 은행 : 은행나무의 열매. 지름 약 2cm이다. 은행나무는 암수딴그루로서 10월에 암그루에 달린 열매가 황색으로 익는다.
- 동백나무 씨앗 : 10월초부터 해를넘겨 4월까지 꽃을 피우고 열매에는 세 쪽의 검은색 씨가 들어있다.
- 대추 : 조(棗) 또는 목밀(木蜜)이라고도 한다. 표면은 적갈색이며 타원형이고 길이 1.5~2.5cm에 달하며 빨강계 익으면 단맛이 있다.
- 연꽃씨앗 : 꽃받침(花托)의 구멍 속에 들어 있고, 타원형이며 흑색으로 익는다. 연밥이라고 부른다.

주의사항

- 자칫 재미 위주로 진행하다 산만해질 수 있으니, 메시지 전달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한다.